

서울, 테마산책길 | 숲이 좋은 길 | 관악구

관악산 무장애숲길 4

누구나 산을 오르다

걷는구간 관악산 관문 → 야외식물원
→ 제1광장(호수공원)
→ 제2광장 화장실
→ 모자봉 무장애 숲길

걷는거리 1.3km

소요시간 1시간 30분

추천시기 사계절

난이도 ★ 초급코스





항상 많은 등산객으로 북적이는 관악산이 유모차와 휠체어를 동반한 등산객에게도 두 팔을 활짝 벌렸다. 관악산 제2광장에서 모자봉(열녀암)까지 경사도 약 8% 미만의 평평한 나무데크가 깔려 있어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도 산을 오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숲길의 전체 폭은 설계 단계부터 휠체어 규격이나 회전 시 소요공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휠체어와 유모차 등이 서로 지나쳐 갈 수 있도록 여유가 있다. 그리고 곳곳에 점자안내판, 휠체어 급속충전기 등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총 1.3km의 전구간은 산의 모양새를 따라 산책하듯 숲을 즐길 수 있는 순환형 숲길(750m)과 Z(지그재그)형 오르막길을 따라 산을 오르며 전망할 수 있는 등반형 숲길(550m) 2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어 그날의 기분과 몸 상태에 따라 골라 걷는 재미가 있다. 1구간인 순환형 숲길은 잣나무와 참나무가 우거진 숲 사이로 거의 평평한 길이 나 있어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한가롭게 숲길을 거닐 수 있다.

2구간인 등반형 숲길은 바위쉼터에서 전망쉼터까지 Z형으로 길을 만들어 경사도를 최대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지그재그로 설치된 나무데크길을 올라가다 보면 점점 시야가 트이면서 등산의 묘미가 느껴진다. 서울대와 관악산 능선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무장애 숲길의 끝이자 정자가 있는 전망쉼터가 나온다. 근처 서울대학교 교정은 물론 남산타워와 63빌딩 등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무장애 숲길 곳곳에 만들어진 쉼터도 매력적이다. 하트 모양의 바위가 있는 '바위 쉼터', 책을 볼 수 있는 '책 읽는 쉼터',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잣나무 쉼터' 등이 있어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관악산 무장애 숲길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도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서울대입구역 정류장에서 5511, 5513번 버스로 환승 후 서울대학교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관악산 관문, 제1광장, 제2광장을 거쳐 약 1.3km 걸어가면 입구가 나온다.
- ☎ 02-879-6522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 Ⓛ 이용시간 제한 없음 / 주차장 별도로 없음 / 제2광장에 화장실 있음
관악산 제1광장에 음수대와 매표 있음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가능
애견 출입 가능(목줄 사용)

순환형 숲길 끝에 조성된 '바위 쉼터'에는 오랜 세월을 거쳐 풍화작용으로 하트 모양을 한 바위가 있어서 등산객들에게 가장 인기 많다.

